

김나영·도경완·이지혜는 '육아神'

자녀들 일상 공개해 인기 폭발
영상마다 60만~200만뷰 훌쩍
방송용 설장 아닌 진솔한 일상
스타들도 '나만의 콘텐츠' 선호

육아 예능 소재가 최근 유튜브를 세무대 삼아 다시 '화력'을 높이고 있다. 최근 방송인 김나영, 방송인 도경완, 가수 이지혜 등이 자녀와 함께 보내는 일상을 유튜브 채널로 다채롭게 공개하면서 주부 이용자뿐 아니라 MZ세대들의 관심까지 끌고 있다. 반면에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슈돌) 등 '원조' 육아 예능프로그램들은 유튜브 콘텐츠에 시청자의 시선을 빼앗기면서 좀처럼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김나영 가족, 영상마다 100만 '대박'

김나영은 '육아 예능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유튜브 채널 '노필터 TV'를 통해 두 아들 신우·이준 군과 '떡방', 여행 등을 그린 브이로그(일상을 담은 영상)를 공개하면서 70만여 명의 구독자를 모았다. 각 영상들은 최대 200만 조회수를 훌쩍 넘겼다. 최근 공개한 '제주살이' 영상은 공개 이틀만인 29일 60만 뷰를 모아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 차트 10위에 올랐다.

도경완과 이지혜도 각각 '도장TV', '밋지않은 관종언니' 채널을 통해 자녀들의 일상을 대중에게 공개하고 있다. 도경완은 아들 연우·딸 하영 양을 직접 찍은 영상에 재치 넘치는 자막을 입혀 영상마다



방송인 김나영, 가수 이지혜, 방송인 도경완(위부터 시계방향)이 자녀들과 함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면서 육아 소재 예능 콘텐츠의 인기를 다시 끌어올리고 있다.

100만 뷰를 모았다. 이지혜는 남편과 꼭 닮은 두 딸을 주인공으로 한 영상으로 대

중의 호감을 얻고 있다. 올해 5살인 큰 딸 태리 양의 성장 과정을 꾸준히 선보인 덕

분에 두터운 팬덤도 확보했다.

●스타들이 유튜브로 물리는 까닭?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최근 20%대(2014년·닐슨코리아)까지 치솟았던 '슈돌'의 시청률은 끊임없는 하향곡선을 그리며 최근 2%대까지 떨어졌다. 한때 경쟁적으로 육아 소재를 제작했던 다른 방송사들은 스타와 자녀의 일상을 담은 대신 전문가들의 육아 상담을 전면에 내세운 포맷을 선택하고 있다. 방송가에서 더 이상 육아 소재가 매력을 드러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연예인들도 관련 예능 프로그램보다 유튜브 영상 출연을 선호하는 분위기다. 29일 한 방송관계자는 "스타들이 자신의 입맛에 맞게 콘텐츠를 기획할 수 있고, 바쁜 일정 사이에 틈틈이 촬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유튜브 제작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극적인 재미를 위해 일부 상황을 설정하는 방송프로그램에 비해 스타들의 '진짜 일상'이 잘 드러나는 점은 시청자의 마음을 움직인 요인으로 꼽힌다.

김나영의 유튜브 영상에는 "일상을 꾸미지 않고 자연스럽게 드러내 보기에 편안하다"는 내용을 담은 500여 개의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도경완은 아내 장윤정과 함께 실제로 자주 사용한 육아용품들을 추천하는 영상을 내놔 화제를 모았다. 주부 시청자 사이에서 "실용적인 육아 팁들이 담겼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구매 대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연예뉴스 HOT 5

EXID 출신 하니, 10살 연상 의사와 열애



하니

양재웅

결그룹 EXID 출신 하니(안희연·30)가 10살 연상인 양재웅(40) 정신학과 의사와 교제 중이다. 29일 하니의 소속사 씨브라임은 "하니와 양재웅이 좋은 만남을 갖고 있다"면서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달라"고 밝혔다. 2011년 EXID 멤버로 데뷔한 하니는 노래 '위 아래' 등을 히트시켰다. 2019년 그룹 활동을 마친 후 연기자로 전향해 드라마 '엑스엑스', '아직 낯서른' 등에 출연했다. 양재웅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채널A '하트시그널' 시리즈, MBC에브리원 '장미의 전쟁' 등을 통해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다.

다비치 멤버 강민경 65억원대 건물 매입



강민경

여성 듀오 다비치 멤버 강민경이 건물주가 됐다. 29일 부동산 전문 매체에 따르면 강민경은 4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65억 원대 빌딩을 매입했다. 23일 잔금을 치렀고 조만간 소유권이 이전되기를 마칠 예정이다. 핫플레이스로 꼽히는 상수동 카페 거리에 위치한 해당 건물은 1992년에 준공됐으며 규모는 지하 1층~지상 5층이다. 등기부등본상 채권최고액은 60억 원으로 설정된 건물로 통상 대출의 120% 수준에서 채권최고액이 설정되므로 실제 50억 원 정도 대출을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가수 김희재, 7월 전국투어 콘서트 취소



김희재

트로트 가수 김희재가 공연기획사와 법적 분쟁으로 인해 7월 예정됐던 전국투어 콘서트 개최를 취소했다. 29일 소속사 스카이엔엠은 김희재의 팬카페를 통해 "공연기획사 모코BNT에 계약 위반으로 인한 공연 무효를 통보하고 현재 소송 중이다. 이번 투어 공연은 개최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알린다"고 밝혔다. 스카이엔엠은 "모코BNT가 공연에 대한 출연료를 가수에게 지급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24일 계약무효에 관한 소장을 서울동부지법에 접수했다. 모코BNT 측은 출연료 미지급 주장을 부인하며 "성의 있는 연습 참여와 곡 리트 전달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무시당했다"고 반박했다.

'박수홍 사생활 폭로' 유튜버 검찰 송치



박수홍

개그맨 박수홍의 사생활과 아내 등에 관련된 폭로성 주장을 내놓은 유튜버가 명예훼손·강요미수·업무방해·모욕 등의 혐의로 검찰 송치됐다.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는 법무법인 에스노종인 변호사는 29일 "유튜버의 주장이 전부 허위이자 거짓임이 입증됐다. 허위 사실 명예훼손, 모욕, 강요미수, 업무방해 등 모든 혐의가 인정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해당 유튜버는 박수홍의 데이트 폭력 및 박수홍 아내의 마약 투약 등을 주장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이에 박수홍은 지난해 8월 그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채널A '청춘스타' 일본 OTT서 차트 1위



채널A '청춘스타'

채널A 오디션 예능 프로그램 '청춘스타'가 일본 최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아베마에서 차트 1위를 차지하며 인기몰이 중이다. 5월 19일 한국과 일본 아베마에서 동시 방송을 시작한 '청춘스타'는 케이(K)팝 부문에서 '뮤직뱅크', '걸스플래닛999', '퀵2' 등을 제치고 6주 연속 1위(28일 기준)를 이어나가고 있다. 최종 우승자는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데뷔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만큼 오리온, 모델프레스 등 일본 주요 미디어와 대형 레코드사의 러브콜도 이어지고 있다.

“결그룹? 요즘 ‘아이브’가 최고야”

데뷔 7개월 만에 펠론 음원차트 1위
타임지, 베스트 K팝에 '일레븐' 선정

신인 결그룹 아이브(안유진·가을·레이·장원영·리즈·이서)의 독주가 펼쳐지고 있다.

"우리가 가진 걸 당당히 보여주겠다"며 지난해 12월 1일 데뷔한 이들이 채 1년도 되지 않아 케이팝 그룹 가운데 가장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다.

29일 국내 최대 음원사이트 펠론 등에 따르면 아이브가 4월 발표한 두 번째 싱글 '러브 다이브'(Love Dive)는 실시간 음원차트 1위를 차지했다. 이미 5월 초 공식적인 음악 활동은 끝났지만, 음원을 내놓은 지 두 달 넘게 장기 흥행 중이다.

'글로벌 스타' 방탄소년단, 싸이를 비롯해 '음원강자'인 임영웅이 신곡을 발표할 당시에는 1위 자리를 내줬다가 최근 다시 역주행하는 기염을 토했다. 팬덤으로는 비교할 수도 없는 쟁쟁한 선배들을 제친 걸과라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러브 다이브'는 중독성 있는 후렴구와 퍼커션 사운드가 어우러진 모던 팝 장르



6인조 신인 결그룹 아이브가 음원차트에서 장기 흥행하며 인기를 과시하고 있다.

사진제공 | 스타쉽엔터테인먼트

로, 사랑할 용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자신에게 뛰어들라는 메시지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미국 타임지는 이달 초 "중독적인 '일레븐'(ELEVEN)으로 지난해 데뷔한 아이브가 '러브 다이브'(LOVE DIVE)를 연이어 히트시키며 단숨에 '원 히트 원더'(one-hit wonder)가 아님을 증명했다"며 "베스트 케이(K)팝 노래"로 선정했다.

앨범 판매량도 눈에 띈다. 데뷔 앨범 '일레븐'(36만2800만 장)과 '러브 다이브'(65만3300만 장)까지 누적 판매량 101만 장(가온차트 집계 기준)을 넘겼다.

가온차트에 따르면 '러브 다이브'가 '일레븐'에 비해 2.2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음원스트리밍은 4배나 증가했다.

뮤직비디오도 두 곡 모두 1억 뷰를 돌파했다. 국가별 유튜브 동영상 조회수 점유율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21.1%로 가장 높고, 일본 14%, 인도네시아 8%, 필리핀 6.3%로 나타났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4년 만에 돌아온 소지섭 "바쁘다 바빠"

드라마 '닥터 로이어' 연기 호평
영화 '외계+인' '자백' 서도 열연

배우 소지섭이 4년만의 복귀작으로 TV와 스크린을 바쁘게 오간다. 2020년 17살 연하의 아나운서 출신 리포터 조은정과 결혼 후 선보인 첫 작품인 MBC 드라마 '닥터 로이어'에 이어 영화 '외계+인'과 '자백'으로 연이어 관객을 만난다.

소지섭은 2018년 '내 뒤의 테리우스'로 연기대상을 거머쥔 후 4년 만에 택한 드라마 '닥터 로이어'로 안방극장에 복

귀했다. 극중 천재 외과 의사 출신의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 역을 맡은 그는 냉철한 카리스마는 물론, 자신의 모든 걸 빼앗아 버린 이들을 향한 처절한 복수심 등을 균형감 있게 연기하며 호평을 얻고 있다.

시청률은 다소 아쉽다. 동시간대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서현진 주연의 SBS '에오수재인가'에 밀려 반등하지 못하고 첫 방송 이후 5~6%의 시청률을 유지하고 있다.

시청률의 아쉬움을 '지금 만나러 갑니다' 이후 영화 '외계+인'(제작 케이퍼필름)

과 '자백'(제작 리얼라이즈퍼픽스)으로 달랠 전망이다.

7월 20일 여름 성수기 극장에 개봉하는 '외계+인'은 '도둑들'과 '암살'로 1000만 관객을 불러 모았던 최동훈 감독이 연출한 SF 판타지 블록버스터다. 류준열, 김태리, 김우빈 등 톱스타들이 총출동한 영화에서 소지섭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외계인에 쫓기게 되는 행사를 연기한다.

이어 하반기 개봉하는 '자백'은 충격적인 반전으로 호평을 받은 스페인 영화 '인비저블 게스트'의 리메이크작이다. 밀실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유망한 사업가 역을 맡아 그의 무죄를 입증하려는 승률 100%의 변호사를 연기하는 김윤진과 호흡한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소지섭